

茶山の 寓話詩 연구

- 〈烏鰂魚行〉·〈狸奴行〉·〈蟲食松〉·〈海狼行〉 등을 중심으로 -

김나혜*

Ⅰ 차례

- I. 머리말
- II. 茶山 寓話詩의 특징
- III. 茶山 寓話詩의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다산 우화시의 특징과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그의 우화시 가운데 〈烏鰂魚行〉·〈狸奴行〉·〈蟲食松〉·〈海狼行〉 등 네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이들을 살펴본 결과 시적화자의 시선은 하층이 아니라 상층을 향하고 있었고,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며, 비판의 대상은 상층 관리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특징이 의미하는 바를 ‘實學思想의 민중지향성’으로 귀결시키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연구시각의 폭을 확장시켜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載道論적 관점’으로 다산의 시에 접근해 보았다.

물론 다산의 우화시 가운데 이들 네 작품에 한정하여 논의한 결과로 그의 시에 대한 연구시각의 한계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방대한 분량으로 축적된 다산의 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시각이 요청되고, 이 글에서 ‘載道論적 관점’으로 그의 시에 접근한 것은 또 다른 연구시각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는 측면에서 작지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제어

다산, 우화시, 오적어행, 이노행, 충식송, 해랑행, 실학사상, 민중지향성, 제도론

I. 머리말

茶山 丁若鏞 (1762~1836)이 남긴 2500여 수의 漢詩는 우리 문학사에서 괄목할 만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茶山의 시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민중성 혹은 민족문학론의 자장을 벗어나지 않고 수렴되는데,¹⁾ 이는 그가 지닌 實學思想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茶山의 시에 대해 實學思想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은 온당하게 여겨지고, 그 전개과정 또한 견고하여 다른 측면에서 논의할 여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茶山의 시에 대한 논의는 實學思想을 중심으로 귀결되며 연구의 시각은 단선적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는 茶山의 작품이 지닌 의미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한편, 그의 實學思想이 지닌 중요도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茶山이 남긴 방대한 작품에 대한 상당량의 연구들이 단선적으로 귀결되는 현상은 작품의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시키고, 다각도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풍부하게 도출될 수

1) 최신희, 「정다산의 문학관」, 『한국한문학연구』 1, 한국한문학회, 1976; 김지용, 「다산 문학의 사실성」, 『국어국문학』 72·73합집, 국어국문학회, 1976; 김상홍, 「정다산의 사회시 연구」, 『국문학논집』, 단국대학교, 1978; 송재소, 『다산시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6; 이기현, 「사실적 서사시의 형상화 원리」, 『한민족문화연구』 3, 1998. 이 외의 선행 연구에서도 다산 시의 성격에 대한 입장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있는 작품의 의미를 협소하게 만든다. 이는 茶山의 시에 대한 연구 시각의 한계를 노정하며, 이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연구 시각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茶山의 시에 대해 다른 각도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한편, 茶山의 시에 대한 논의는 사회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寓話詩²⁾는 사회비판적 성격이 강조되며 實學思想과 긴밀하게 논의되었다.³⁾ 이는 本稿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살필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라 생각되고,⁴⁾ 논의하는 과정에서 茶山이 지향하는 바와 그 의도하는 바를

2) 寓話의 사전적 의미는 운문체 혹은 산문체로 된 짤막한 윤리적 이야기를 뜻하며, 주로 동물이나 새를 통해, 혹은 神들과 무생물을 통해 인간적인 상황과 인간의 행동이 묘사되고, 분위기는 반어적, 현실적, 풍자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84, 211쪽.) 그리고 寓話詩는 알레고리(allegory)의 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복수의 인물이 등장하여 사건이 전개되어 기본적으로 서사장르에 속하며 단수의 화자가 등장하는 서정시와 구별된다고 본다.(송재소, 『茶山詩研究』, 창작과 비평사, 1986, 134~135쪽.)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용어로 동·식물을 소재로 寓意의 형식을 빌려 인간의 행위나 현실과 사회를 우회적으로 형상화한 한시로 정의하고, 서사가 완전한 형태의 작품과 서정성이 두드러진 작품까지 아울러 포함하여 寓言詩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진재교, 「다산의 우연시와 그 성격」,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356쪽.) 이 글의 논의의 대상인 茶山의 시는 서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寓話詩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송재소, 위의 책.
 김성진, 「다산의 우연시문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87
 윤종배, 「韓國漢詩에 나타난 寓話詩의 전개양상」, 단국대 석사논문, 1988.
 김인철, 「다산 우의시문의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3.
 _____, 「茶山 寓話詩에 대한 實證的 考察」, 『어문논집』 43, 민족어문학회, 2001.
 진재교, 위의 논문.

4) 本稿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측면에서 선행된 연구가 있는데, 김인철은 茶山의 寓話詩에 대해 實學思想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한 나머지 개개의 작품 속에 내재해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 미흡했던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별 작품의 의미를 개인·사회적 차원에서 밝힌 바 있다.(김인철, 「茶山 寓話詩에 대한 實證的 考察」, 『어문논집』 43, 민족어문학회, 2001, 88

살펴 그간의 연구 시각과 다른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漢詩史에서 寓話詩에 대한 논의가 협소하게 전개된 것에 비해 茶山은 비교적 많은 양의 寓話詩를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의 중심을 점유한다.⁵⁾ 논의 과정에서 〈烏鰂魚行〉·〈狸奴行〉·〈蟲食松〉·〈海狼行〉 등은⁶⁾ 茶山의 寓話詩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론되었지만, 이들에 한정하여 그 의미를 밝힌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고, 우선 범주를 좁혀 집약적으로 살피는 것이 本稿의 목적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이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本稿는 茶山 寓話詩 〈烏鰂魚行〉·〈狸奴行〉·〈蟲食松〉·〈海狼行〉 등을 대상으로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 다른 각도에서 작품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茶山 寓話詩는 물론이고, 그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연구 시각의 폭을 확장하는 데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9쪽.) 그런데 이는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本稿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개별 작품에 천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어, 다른 각도의 연구 시각을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本稿와 차별화 된다.

5) 윤중배, 앞의 논문.

송병렬, 「우언시의 특징과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6) 이들 네 작품 외에도 〈古詩〉 27수가 전해지나,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들에 비해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들이 본격적인 다산의 우화시로 거론되므로 네 작품에 한정한다. 이들은 다산의 『輿猶堂全書』에 수록되어 있고, 시의 원문과 해석은 송재소의 책을 인용하여 이 책의 쪽수를 밝히고자 한다. (송재소, 『茶山詩選』, 창작과 비평사, 1981.)

II. 茶山 寓話詩의 특징

① 〈烏鰂魚行〉

〈烏鰂魚行〉은 오징어와 백로가 물가에서 다투는 장면을 포착하여 형상화한 寓話詩인데, 일반적으로 漢詩에서 백로와 까마귀가 대립하는 것에 비교하면 신선하게 여겨질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오징어가 백로에게 적당히 살아가기를 회유하며 결백함을 지키려는 백로를 오히려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오징어 한 마리 물가에서 노닐다가	烏鰂水邊行
갑자기 백로와 부딪쳤는데	忽逢白鷺影
회기는 한 조각 눈결이요	皎然一片雪
맑고 고요하기 잔물결 같아	炯與水同靜
머리 들고 백로에게 이르는 말이	舉頭謂白鷺
네 뜻은 도대체 알 수 없구나	子志吾不省
기왕에 고기 잡아 먹으려면서	旣欲得魚噉
창절은 지켜서 무얼 하려나	云何清節秉
내 뱃속엔 언제나 검은 먹물 들어 있어	我腹常貯一囊墨
한번 뱉어 먼 데까지 시커멓게 할 수 있네	一吐能令數丈黑
고기들 눈이 흐려 지척 분간 못하고	魚目昏昏咫尺迷
꼬리치며 가려 해도 남북을 잃어버려	掉尾欲往忘南北
입 벌려 삼켜도 알지 못하니	我開口吞魚不覺
나는 늘 배 불리고 고긴 늘 속고 있지	我腹常飽魚常惑
자네 날개 너무 희고 털은 유별나서	子羽太潔毛太奇
아래위로 흰옷이니 누가 의심 안 하겠나	縞衣素裳誰不疑
간 곳마다 고운 얼굴 물에 먼저 비쳐서	行處玉貌先照水
고기들 먼 데서도 너를 보고 피해 가니	魚皆遠望謹避之
하루종일 서 있을들 장차 무얼 기대하리	子終日立將何待

다리만 아프고 배는 항상 주릴 뿐	子脛但酸腸常飢
오기를 찾아가 그 날개 빌려다가	子見鳥鬼乞其羽
적당히 검게 해서 편하게 살아보게	和光合汗從便宜
그래야 많은 고기 잡아가지고	然後得魚如陵阜
암놈도 먹이고 새끼들고 먹일걸세	啗子之雛與子兒
백로가 오징어에게 답해 가로되	白鷺謂烏鯽
자네 말도 일리가 없지 않으나	汝言亦有理
하늘이 나에게 결백함을 내리셨고	天旣賦予以潔白
스스로 살펴봐도 더러운 곳 없으니	予亦自視無塵滓
내 어찌 조그마한 이 배를 채우려고	豈爲充茲一寸嗉
모양까지 바꾸면서 그같이 하겠는가	變易形貌乃如是
고기 오면 잡아먹고 달아나면 좇지 않고	魚來則食去不追
꽃꽂이 서 있다가 천명을 기다릴 뿐	我惟直立天命俟
오징어 화를 내고 먹물을 뱉으면서	烏鯽含墨嘔且噴
어리석다 백로여 굶어죽어 마땅하리	愚哉汝鷺當餓死 ⁷⁾

이 시에 등장하는 오징어와 백로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둘 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오징어와 백로가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고, 오징어를 통해 용납되어지지 않는 현실적 삶을 나타내는 반면, 백로를 통해 士大夫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려는 다산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⁸⁾ 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오징어가 백로를 공격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풍자의 주대상은 오징어보다 오히려 백로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보고, 탐관오리의 상징인 오징어에게서 조차 백로가 비판당하는 것은 儒者들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로 인한 사

7) 송재소, 『茶山詩選』, 203~206쪽.

8) 김인철, 앞의 논문, 98~99쪽.

회적 모습과 피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⁹⁾ 그리고 둘 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오징어와 백로의 대립을 善惡의 양분법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작은 물고기는 지배받는 일반 민중을 나타내고, 오징어와 백로는 민중의 수탈 위에서 생활하는 양반 사대부 계층을 암시한다고 보았으며, 오징어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착취를 일삼는 봉건 관료를 상징하고 백로는 비교적 덜 부정직한, 벼슬 못한 무능한 선비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오징어를 나쁘게 보면서도 백로에게 결코 동정적인 시선을 던지지 않는 다산의 현실관을 나타낸다고 보았다.¹⁰⁾ 또한, 오징어와 백로를 고기를 잡아먹고 산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하며, 오징어를 백성의 수탈자로, 백로를 고기를 잡아먹고 싶지만 체면을 생각해 나서지 못하는 위선적 선비로 보았다. 이들을 통해 인간의 탐욕과 거짓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부당한 이익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하며¹¹⁾ 둘 다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지만 오징어를 수탈자로 백로를 士大夫로 보는 시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당대 현실을 고려하면 수탈자인 오징어도 백로와 동일한 양반계층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烏鰂魚行〉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오징어와 백로를 의미하는 상층이지 이들에게 수탈을 당하는 물고기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시의 등장인물인 오징어·백로·물고기를 계층상 상·하층으로 구분하면 오징어와 백로는 상층으로 물고기는 하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갈등의 주체는 상층으로 소급되고, 갈등의

9) 윤종배, 앞의 논문, 68~69쪽.

10) 송재소, 앞의 책, 142쪽.

11) 김성진, 앞의 논문, 61~62쪽.

원인 또한 상층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烏鰂魚行〉에서 갈등의 쟁점이 결백함으로 모아지는 것은 상층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작가의 시선도 하층이 아닌 상층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實學思想의 입장에서 상층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오징어와 백로의 다툼이 淸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들을 두고 누구를 비판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시에서 시적화자의 시선은 수탈자들에 의해 꺾박당하는 하층이 아니라 상층의 삶의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海狼行〉

〈海狼行〉은 솔피와 고래의 갈등을 형상화하는데, 솔피의 집요한 공격으로 결국 고래가 죽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솔피란 놈 이리 몸에 수탈의 가죽	海狼狼身而獮皮
가는 곳엔 수백 마리 떼지어 다니는데	行處十百群相隨
물속 동작 날쌔기가 나는 것 같아	水中打圍捷如飛
갑자기 덮쳐오면 고기들도 알지 못해	欸忽拵襲漁不知
큰 고래 한 입에 천 고기 삼키니	長鯨一吸魚千石
한번 스쳐간 곳 고기 씨가 말라 버려	長鯨一過魚無跡
솔피 차지 없어지자 고래를 원망하여	狼不逢魚恨長鯨
고래 죽이기로 솔피들 모의하네	擬殺長鯨發謀策
한 때는 달려들어 고래 머리 공격하고	一群衝鯨首
한 때는 뒤로 가서 고래 꼬리 얹어매고	一群繞鯨後
한 때는 왼쪽에서 기회 노리고	一群伺鯨左
한 때는 고래 오른쪽서 옆구리 치고 받고	一群犯鯨右
한 때는 물속에서 배때기를 올려치고	一群沈水仰鯨腹
한 때는 뛰어올라 고래 등에 올라타고	一群騰躍令鯨負

상하사방 일제히 고향을 지르며	上下四方齊發號
난폭하게 깨물고 잔인하게 할퀴니	抓膚肌齧何殘暴
우리처럼 소리치고 물을 내뿜어	鯨吼如雷口噴水
바닷물 끓어올라 무지개 일어나네	海波鼎沸晴虹起
무지개 사라지고 파도 점점 가라앉자	虹光漸微波漸平
아! 슬프도다 고래 죽고 말았구나	嗚呼哀哉鯨已死
혼자 힘이 많은 힘 당하지 못해	獨夫不遑敵衆力
작은 피가 드디어 큰 미련 이겼구나	小點乃能殲巨慝
너희들 혈전이 이런 꼴을 낭단 말가	汝輩血戰胡至此
원래는 뜻은 먹이 싸움 아니었더냐	本意不過爭飲食
호호탕탕 끝없이 넓은 바다에	瀛海滌洋浩無岸
지느러미 흔들고 꼬리 치면서 서로 함께 사이 좋게 놀지 못하고	汝輩何不揚鬣掉尾相休息 ¹²⁾

이 시에 나타나는 솔피와 고래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모두 지배계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왕권과 봉건귀족간의 세력 다툼으로 보는가 하면,¹³⁾ 죽은 고래나 죽인 솔피나 힘없는 고기를 먹어치운다는 점에서 이들의 다툼을 지배계층의 당쟁으로 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들의 싸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¹⁴⁾ 고래를 수령으로 솔피를 향리로 보며 양자의 조화로운 화합에 대한 열망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¹⁵⁾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조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茶山의 인식을 표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기도 했다.¹⁶⁾

그런데 솔피와 고래는 먹이 다툼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대등하게 다

12) 송재소, 『茶山詩選』, 191~193쪽.
 13) 송재소, 앞의 책, 143~146쪽.
 14) 김성진, 앞의 논문, 51~52쪽.
 15) 김인철, 앞의 논문, 117쪽.
 16) 진재교, 앞의 논문, 380쪽.

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솔피가 무리를 지어 여러 떼가 고래의 각 부위를 맡아야 할 정도로 힘에 있어서는 고래가 솔피에 비해 현격하게 우위에 있지만, 상대적 약자인 솔피가 승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들이 다툰 원인은 고래가 물고기를 종자도 없을 정도로 삼켜 솔피의 먹이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판단하면 물고기와 솔피의 입장에서 고래의 죽음은 약자의 승리다. 그리고 시적화자가 물고기와 솔피의 입장을 취한다면 고래의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시적화자는 고래의 죽음을 애도하며 화합하지 못하고 고래를 죽인 솔피를 비난한다. 시적화자의 바람대로 이들이 화합하면 결국 물고기의 폐죽음은 피하기 어렵다. 왜 물고기의 상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가. 결국 이 시 또한 앞서 살펴본 〈烏鰂魚行〉에서와 동일하게 시적화자의 시선은 상층에 고정되어 있으며, 전자에서 淸節을 강조했다면, 후자에서는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작품에서 강조한 淸節이나 화합은 하층의 문제가 아니라, 상층에서 실현해야 할 유교적 이념인 節과 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狸奴行〉

〈狸奴行〉은 남산골 늙은이가 쥐를 잡으려 고양이를 키웠으나, 고양이가 오히려 도둑질을 일삼고, 이에 격분한 늙은이는 고양이를 죽이고 차라리 사냥개를 풀어 쥐를 잡겠다고 격분하고 있다.

남산골 늙은이 고양이를 길렀더니	南山村翁養狸奴
해묵고 피들어 요망하기 여우로세	歲久妖兇學老狐
밤마다 초당에서 고기 뒤져 훔쳐먹고	夜夜草堂盜宿肉
작은 단지 큰 단지 마구잡이 깨뜨리네	翻瓦覆甌連觴壺

어둠 틈타 교활한 짓 제멋대로 다하다가	乘時陰黑逞狡獪
문 열고 소리치면 형체 없이 사라지네	推戶大喝形影無
등불 켜고 비춰보면 더러운 자국 널려 있고	呼燈照見穢跡徧
이빨자국 나 있는 찌꺼기만 남자하네	汁滓狼藉齒入膚
늙은 주인 잠 못 이뤄 근력은 줄어가고	老夫失睡筋力短
이리저리 궁리하나 나오느니 긴 한숨뿐	百慮皎皎徒長吁
생각할수록 고양이 죄 극악하기 짝이 없네	念此狸奴罪惡極
긴 칼 빼어 들고 천벌을 내릴거나	直欲奮劍行天誅
네놈이 생겨날 때 무엇하러 생겼더냐	皇天生汝本何用
너보고 쥐 잡아서 백성 피해 없애랬지	令汝捕鼠除民瘼
들쥐는 구멍 파서 여린 낱알 숨겨 두고	田鼠穴田蓄穉穡
집쥐는 이것저것 안 훔치는 물건 없어	家鼠百物靡不偷
백성들 쥐 등쌀에 나날이 초췌하고	民被鼠割日憔悴
기름 말라 피 말라 피골마져 말랐다네	膏焦血涸皮骨枯
이 때문에 너를 보내 쥐잡이 대장 삼았으니	是以遣汝爲鼠帥
마음대로 찢어 죽일 권력도 네게 주었고	賜汝權力恣磔劓
황금같이 반짝이는 두 눈을 주어	賜汝一雙燦煌黃金眼
칠혹 같은 밤중에도 올빼미처럼 벼룩도 잡을 만큼 두 눈 밝혔지	漆夜撮蚤如梟雛
너에게 보라매의 쇠발톱 주었고	賜汝鐵爪如秋隼
톱날 같은 범의 이빨 또한 주지 않았더냐	賜汝鋸齒如於菟
〈중략〉	
쥐들은 훔친 물건 너물로 주고	聚其盜物重賂汝
태연히 나와 함께 돌아다니니	泰然與汝行相俱
호사자들 때때로 너를 본받아	好事往往亦貌汝
무수한 쥐떼들이 하인처럼 떠받들어	群鼠擁護如驢徒
북치고 나팔 불며 때를 지어선	吹螺擊鼓爲法部
깃발을 휘날리며 앞장서 가네	樹纛立旗爲先驅
너는 큰가마 타고 거만 부리며	汝乘大輜色天矯
쥐들의 떠받들만 즐기고 있구나	但喜群鼠爭奔趨
내 이제 붉은 활에 큰 화살 매겨 내 손으로 네놈들을 쏘아 죽이리	我今彤弓大箭手射汝

만약에 쥐들이 행패 부리면 차라리 무서운 개 불러대리라

若鼠橫行寧嚇虛¹⁷⁾

이 시에 나타나는 쥐와 고양이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도둑과 관리로 보는데, 쥐는 도둑으로 고양이는 捕盜軍官으로 보고 고양이가 도둑이 된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보는가 하면,¹⁸⁾ 늪은이를 일반백성에, 쥐는 갖은 피로 백성의 재물을 엿보는 향사에 그리고 고양이는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향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령에 비유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지방아전들을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진 수령이 오히려 그들과 결탁하여 고향을 빼는 기막힌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¹⁹⁾ 남산골 늪은이는 일반 백성에, 쥐는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는 수령과 아전에, 고양이는 監司에 비유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⁰⁾ 이들을 종합하면 쥐와 고양이를 모두 관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양이에 대해서는 고위 관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늪은이를 단순히 일반백성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시에서는 갈등의 범위가 확장되어 인간과 동물간의 문제로 전개되는데, 상층과 하층에 인간이 존재하고 중간층에 고양이와 쥐가 존재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쥐가 백성의 양식을 수탈하자 늪은이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부리고, 고양이에게 모든 권력을 주지만,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고 오히려 쥐와 결탁하고 뇌물을 받는가 하면, 고양이가 백성의 물건을 훔치기도 한다. 이들을 상·하의 관계로 구분하면 늪은이-고양이-쥐-백성의 순서로 늪은이는

17) 송재소, 『茶山詩選』, 298~301쪽.

18) 김성진, 앞의 논문, 38~41쪽.

19) 윤중배, 앞의 논문, 73~74쪽.

20) 송재소, 앞의 책, 149쪽.

고양이를 부리는 가장 상층으로 나타나고, 고양이는 수탈자를 잡는 입장이었으나, 쥐와 동일하게 수탈자로 전락하며, 백성만 착취를 당하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양이와 쥐는 백성을 착취하는 수탈자로 볼 수 있으나, 늪은이를 백성과 동일하게 보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늪은이와 백성을 구분하여 늪은이를 상층에 백성을 하층에 놓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海狼行〉에서 솔피가 고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반면, 〈狸奴行〉에서 늪은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며 고양이에 대해 적개심을 보인다. 이 두 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가장 문제적인 인물은 솔피와 고양이인데, 이들은 백성의 우위이나 고래나 늪은이 보다 아래에 있는 상층 관리들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작품에서 비판의 핵심적 대상은 솔피와 고양이로 형상화된 관리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상층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솔피는 고래를, 고양이는 늪은이를 지키지 못했다. 결국 이 두 시는 상층을 유지하기 위해 중간 관리를 비판하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④ 〈蟲食松〉

〈蟲食松〉은 산을 가득 메운 소나무를 송충이가 갉아 먹은 것에 대해 분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대 아니 보았더냐 천관산 가득 찬 솔	君不見天冠山中滿山松
천 그루 만 그루 봉마다 뒤덮었네	千樹萬樹被衆峯
푸르고 울창한 노송뿐만 아니라	豈惟老大鬱蒼勁
어여쁜 어린 솔도 충충히 돋았는데	每憐穉小羅丰茸

하룻밤새 모진 벌레 천지를 가득 메워	一夜沴蟲塞天地
못주둥이 솔잎 갹기 떡먹듯 하는구나	衆喙食松如齋饗
어릴 때도 살빛 검어 추하고 미웁더니	初生醜惡肌肉黑
노란 털에 붉은 반점 자랄수록 흉하도다	漸出金毛赤斑滋頑兇
바늘 같은 잎을 갹아 진액을 말리더니	始葉針刺竭津液
나중엔 즐기 껍질 마구 씹어서 부스럼 상처를 여기저기 만들었네	轉齧膚革成瘡癰
소나무 날로 마르나 까딱도 하지 않고	松日枯槁不敢一枝動
곧추서서 죽는 모습 엄진하기 짝이 없네	直立而死何其恭
붓고 터진 가지 줄기 처량히 마주 보니	瓌柯癯幹淒相向
상쾌한 바람소리 나무 사이 짙은 그늘	爽籟茂樾嗒何從
애달프다 이제는 어디 가서 찾으리요	天之生松深心在
하늘이 너를 낼 때 깊은 생각 있었기에	四時護育無大冬
일년 사철 곱게 키워 한겨울도 몰랐었지	寵光隆渥出衆木
사랑 받고 은혜 입어 나무 중에 뛰어나니	況與桃李爭華穠
복사꽃 오얏꽃의 화려함과 비길순가	太室明堂若傾圮
대궐 명당 낡아서 무너질 때엔	與作脩梁蠹棟來朝宗
들보 되고 기둥 되어 조정에 들어왔고	漆齒流求若隙突
섬 오랑캐 왜놈들 달려들 때엔	與作臙鐘巨艦摧前鋒
날췌고 웅장한 배가 되어 앞장서서 적의 예기 꺾어 놓았지	汝今私慾恣殄瘁
네놈 벌레 사사로운 욕심부러서	我欲言之氣上衝
마음대로 소나무 말려버리니 분노가 치밀어 말이 막히네	安得雷公霹靂斧
어찌하면 뇌공의 벼락도끼 얻어내어	盡將汝族秉畀炎火洪鑪鎔 ²¹⁾
네놈의 족속들 모조리 잡아다가 이글대는 화독 속에 넣어버릴고	

이 시에 나타난 송충이는 소나무같이 점잖은 君子를 괴롭히는 小人輩

21) 송재소, 『茶山詩選』, 241~243쪽.

를 가리키고 훌륭한 인재를 헐뜯고 모함하는 姦臣들에 비유될 수도 있으며, 선량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지방관들을 상징한다고 봤으며,²²⁾ 소나무를 선비로 송충이를 姦臣輩로 보고 姦臣輩가 득세하고 진인이 세상을 피하는 현실을 개탄한 것으로 보았다.²³⁾ 이 두 견해는 모두 소나무를 양반으로 보고 있고 송충이를 姦臣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 외에 소나무를 다산으로 송충이를 서용보로 보고 신유사옥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했으나,²⁴⁾ 이 역시 앞서 살펴본 두 견해와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나무의 입장에서 송충이를 비판하는 것은 시의 내용상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송충이를 비판하는 이유이다. 즉, 소나무를 위급한 상황에 준비된 인재로 보며, 송충이에게 사사로운 욕심으로 소나무를 말려 죽인 것에 대해 분노하는데, 이는 이들의 관계를 유교적 이념인 忠의 논리로 보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蟲食松〉에서 소나무는 나라를 위해 준비된 인재이자,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는 양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송충이는 私慾으로 소나무를 훼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姦臣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蟲食松〉의 소나무는 〈烏鰂魚行〉의 백로와 〈海狼行〉의 고래처럼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유교적 이념을 추구하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蟲食松〉의 송충이는 〈烏鰂魚行〉의 오징어와 〈海狼行〉의 솔피처럼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유교적 이념을 훼손하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蟲食松〉의 송충이는 〈狸奴行〉의 고양이와 쥐와 같이 私慾을 채우느라 착취를 일삼는 상층 관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蟲食松〉은 시적

22) 송재소, 앞의 책, 152~154쪽.

23) 김성진, 앞의 논문, 31~32쪽.

24) 김인철, 앞의 논문, 108~109쪽.

화자가 지향하는 유교적 이념을 분명히 나타내고, 이를 훼손하려는 자에 대해 경계하고 비판하는 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茶山의 寓話詩 〈烏鰂魚行〉·〈海狼行〉·〈狸奴行〉·〈蟲食松〉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을 살펴본 결과 시적화자는 상층의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며, 이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판하고 경계한다. 특히 〈海狼行〉에서 고래는 〈狸奴行〉의 고양이·쥐와 착취자라는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자는 옹호의 대상이나 후자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솔피가 고래를 전복시킨 것은 民을 지향한다면 혁명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시적화자는 격분하며 고래와 화합하지 못하는 솔피를 비난한다. 이를 두고 民을 지향한다고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해 접근 방법을 달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茶山 寓話詩의 의미

茶山의 寓話詩 〈烏鰂魚行〉·〈海狼行〉·〈狸奴行〉·〈蟲食松〉 등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갈등의 원인은 상층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상층 가운데 관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이 모든 작품에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작품별로 그 강조하는 바의 차이는 있지만, 네 작품을 종합하여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특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究明해야 하는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은 茶山의 寓話詩를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 시각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에서 茶山의 寓話詩의 의미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검토한 후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本稿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측면에서 선행된 김인철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는 茶山의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 實學思想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인정하나 이에 지나치게 집착해 작품의 온당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 부정적 사례도 있음을 지적하고 개별 작품에 친착했다.²⁵⁾ 茶山의 寓話詩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주로 〈烏鰂魚行〉·〈蟲食松〉·〈海狼行〉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작품이 창작된 시기와 작가의 생애를 직대입시켜 작품의 의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작품이 창작된 시기는 茶山이 辛酉邪獄로 인해 유배생활을 했던 때로, 이를 작품에 접목시켜 〈烏鰂魚行〉은 다산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았고, 〈蟲食松〉은 辛酉邪獄때 자신을 유배지로 보내려 했던 서용보로 인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기도 했으며, 〈海狼行〉은 茶山의 관할구역에서 監司와 지방수령이 대립하는 바를 풍자한 것으로 보았다.²⁶⁾ 이러한 시도는 茶山의 寓話詩를 實學思想의 경사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시각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방법으로 〈海狼行〉을 논의한 진재교는 이 작품을 정조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를 추모하고자 쓴 시로 분석하고 있어²⁷⁾ 의미의 차이를 보여준다. 물론 동일한 작품에 연구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동일한 작품에 각기 다른 사건을 적용시켜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도 작가의 생애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작가의 생애와 개별 작품의 관계성에 함몰되어 작품의 종합적 의미에 접근하지 못할 우려가 따른다. 따라서 茶山의 시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생애와 관련성을 두는 것은 분명히 작가의 의도에 한층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25) 김인철, 앞의 논문, 88~89쪽.

26) 김인철, 앞의 논문, 95~117쪽.

27) 진재교, 앞의 논문, 367~373쪽.

방법이나, 동일한 작품에도 다른 사건을 적용할 수 있어 개별 작품의 의미가 달라져, 종합적으로 작품에 접근하는 데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茶山의 寓話詩를 實學思想의 측면에서 접근한 논의를 살펴보면, 송재소는 茶山의 寓話詩를 전체적으로 봉건 지배층과 일반 백성과의 대립을 말하기 위한 알레고리로 보았고²⁸⁾ 농민과 전호의 편에서 이 대립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스스로 “다산의 시도 기본적으로 양반 사대부의 문학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어느 양반 사대부보다 자신의 신분적인 제약에서 멀리 벗어나 농민생활에 가까이 접근해 있었다. 문제는 그의 시가 얼마나 민중적이냐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가 민중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했고, 또 한편으로는 신분적인 위치가 그의 의식을 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에는 이 양자의 궤적이 다 같이 그려져 있다.”²⁹⁾ 지적한 바와 같이 茶山의 작품을 實學思想의 자장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茶山이 유배지에서 농민들의 상황을 분명히 目睹한 것은 맞지만, 그 자신이 민중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민중의 처참한 현실을 민요에 접근하여 漢詩로 남겼으나, 한글을 사용하여 민요를 남기지는 않았다. 왜 茶山은 현실 개혁가였고 민중을 대변하면서 漢詩만 남겼는지 그의 문학관을 살펴보자.

한유와 유종원은 中興之祖라 일컫지만, 그 따져보면 근본이 없으니, 중흥을 어떻게 했단 말인가. 내부에서 발현되지 않은, 모두 겉치레만 한 문장으로 자신을 자랑했으니, 이것이 어찌 옛날의 이른바 문장이겠는가? 한유·유종원·구양수·소식의 이른바 서문·기문 등 여러 글들은 모두 화려하기

28) 송재소, 앞의 책, 169쪽.

29) 송재소, 앞의 책, 185쪽.

는 하지만 알맹이가 없고, 기이하기는 하지만 올바르지 않다.

어려서 이 글들을 읽고 기뻐하여 평가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안으로는 이 글로 몸을 수양하고 어버이를 섬길 수 없고, 밖으로는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읽고 사모해본들 좌절하고 실망할 뿐 끝내 이 글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문장이란 정말 吾道의 蠹賊인 것이다.³⁰⁾

茶山은 한유와 유종원 등 당·송의 작가들을 비판하며, 이들의 글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며, 문장으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茶山の 문학관에 대해 강명관은 載道論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명·청의 문학은 물론 경전을 제외한 모든 문학을 일괄 부정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았다.³¹⁾ 이는 茶山이 漢詩만 남긴 이유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앞서 茶山の 寓話詩 〈烏鰂魚行〉·〈海狼行〉·〈狸奴行〉·〈蟲食松〉 등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살핀 결과 시적화자의 시선은 상층을 향해 있고,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茶山の 寓話詩를 載道論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의 이념을 문학으로 형상화하여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茶山の 현실 개혁 사상에서도 왕권강화 의식을 살필 수 있다. 茶山の 〈俗儒論〉에서는 조선유교의 공리공담은 비난하였으나 유교의 본래의 교리와 윤리를 반대하지는 않았고, 근본적으로 유학적 테두리 내의 진보라 볼 수 있으며, 그의 토지개혁론인 〈閭田論〉에서도 중세적 귀족세력을 무너뜨리고자 했으나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며 왕권을 강화시키려

30) 〈五學論 3〉, 강명관, 『茶山과 明·清 文學』, 『동양한문학연구』 36, 동양한문학회, 2013, 17쪽, 인용문 재인용.

31) 강명관, 위의 책, 18쪽.

는 의도를 보여 보수성을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³²⁾ 이러한 다산의 입장은 〈烏鰂魚行〉·〈海狼行〉·〈狸奴行〉·〈蟲食松〉 등 이들 네 작품에서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는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茶山은 정치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監司論〉에서는 감사라는 큰 도적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백성이 살 수 없다고 했는데,³³⁾ 이는 〈狸奴行〉에서 관리를 첨예하게 비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관리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개혁을 촉구한 것은 이들로 인해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라 생각되고, 관리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은 물론 왕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앞서 〈烏鰂魚行〉·〈海狼行〉·〈蟲食松〉 등을 살피며 節과 忠를 지향하는 시적화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작가 의식의 소산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茶山이 유교적 이념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茶山の 寓話詩 〈烏鰂魚行〉·〈海狼行〉·〈狸奴行〉·〈蟲食松〉 등을 분석한 결과 시적화자의 시선은 하층이 아니라 상층을 향하고 있었고,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며, 비판의 대상은 상층 관리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다산의 실학사상에 나타난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그는 현실개혁적인 실학사상을 주장했으나 유교적 이념을 견지한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茶山の 寓話詩는 자신이 바라보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태도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茶山은 문학이 윤리와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고 보았고, 유가의

32) 홍덕기,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0, 115~116쪽.

33) 조동일, 「丁若鏞」, 『한국문학사상사론』, 지식산업사, 2009, 353쪽.

윤리관·정치관과 직선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은 載道論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유교 국가이면서도 유가의 이상과는 철저히 배치되는 사회를 그가 정직하게 인식한 것에서 기인한다.³⁴⁾ 앞서 살펴본 茶山の 寓話詩 네 작품에서도 茶山の 입장에서 유교적 이상과 배치되는 현실이 포함되어 있다. 〈烏鰂魚行〉에서는 결백함을 지키려는 백로가 오징어에게 수난을 당하고, 〈海狼行〉에서는 솔피의 무리가 고래를 죽이며, 〈狸奴行〉에서는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쥐와 결탁하는가 하면, 〈蟲食松〉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재산인 소나무를 송충이가 갉아 먹는다. 이러한 현실은 茶山の 입장에서 節·忠가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烏鰂魚行〉에서는 백로, 〈海狼行〉에서는 고래, 〈狸奴行〉는 늪이, 〈蟲食松〉에서는 소나무를 긍정하며, 이들을 통해 茶山은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할 유교적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茶山の 寓話詩를 〈烏鰂魚行〉·〈狸奴行〉·〈蟲食松〉·〈海狼行〉 등을 네 작품을 대상으로 그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들을 살펴본 결과 시적화자의 시선은 하층이 아니라 상층을 향하고 있었고,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며, 비판의 대상은 상층 관리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다산의 시를 민중지향성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하고, 그의 시에 대한 연구시각의 폭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에 本稿에서는 다산의 사상을 살펴보며 그가 현실 비판적이지만, 유교적 이

34) 강명관, 앞의 논문, 19~20쪽.

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다산의 우화시를 자신이 바라보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태도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 전달의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茶山의 寓話詩에 대해 선행 연구의 방법을 살펴며, 그 한계를 지적하고, 載道論적 관점에서 작품에 접근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茶山의 寓話詩뿐만 아니라 그의 시에 대한 연구시각이 실학사상에 경도되어 편향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茶山의 寓話詩 가운데 〈烏鰂魚行〉·〈狸奴行〉·〈蟲食松〉·〈海狼行〉 등 네 작품에 한정하여 시도된 연구의 결과로 방대한 茶山 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茶山의 시에 대해 다양한 연구시각이 요청되는 만큼 그의 다른 시에도 載道論적 관점을 적용시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통해 茶山의 시의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84, 211쪽.
 송재소, 『茶山詩研究』, 창작과 비평사, 1986, 134~135쪽, 152~154쪽.
 진재교, 「다산의 우언시와 그 성격」,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356쪽, 380쪽.
 김인철, 「茶山 寓話詩에 대한 實證的 考察」, 『어문논집』 43, 민족어문학회, 2001, 88~89쪽.
 송재소, 『茶山詩選』, 창작과 비평사, 1981, 203~206쪽, 191~193쪽, 298~301쪽, 241~243쪽.
 김인철, 「다산 우의 시문의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3, 108쪽.

- 강명관, 「茶山과 明·淸文學」, 『동양한문학연구』 36, 동양한문학회, 2013, 17쪽, 19~20쪽.
- 홍덕기,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0, 115~116쪽.
- 조동일, 「丁若鏞」,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2009, 353쪽.
- 윤종배, 「한국 한시에 나타난 우화시의 통시적 고찰」, 『한문학논집』 7, 근역한문학회, 1989, 73~74쪽.
- 김성진, 「다산의 우언 시문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87, 38~41쪽.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Tasan's Allegorical 詩oems

Kim, Na-Hy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erpret the hidden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asan's allegorical poems. Among his allegorical poems, especially, Ojeokeohang(烏鯽魚行), Haeranghang(狸奴行), Inohang(蟲食松) and Chungsiksong(海狼行) are discussed throughout this paper. The result after examining his poems was that poetic narrator's perspective was not toward low class but more toward the high class and Confucian ideology, and target of criticism was concentrated in upper class administration. It was limited to draw a conclusion of those features as 'people oriented practical thoughts'. Therefore, this article raised the needs to widen the perspective of research and tried to approach Tasan's poems with perspective of 'Jaedolon'.

Of course it is limited and hard to discuss Tasan's poems within just four of his works. However, in order to analyze the vast amounts of Tasan's connotative poems tridimensionally, various perspective of research is required, and approaching Tasan's poems as perspective of 'Jaedolon' has opened the possibility of different perspective research which is regarded as meaningful.

Key Word

Tasan, allegorical poems, Ojeokeohang(烏鯽魚行), Haeranghang(狸奴行), Inohang(蟲食松), Chungsiksong(海狼行), Practical thought, people oriented, Jaedolon(載道論)

▪ 논문투고일 : 2013.7.10. 심사완료일 : 2013.8.12. 게재결정일 : 2013.8.13.